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훈련에 적용된 선후배간 동료교수활동 경험 연구 : 선배 동료교수자 경험 중심으로

강지영¹ · 서지영²

¹건강과간호연구소, 제주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 ²부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Cross-Age Peer Tutoring for Core Basic Nursing Skills Training in Nursing Students: Focus on Senior Peer Teachers' Experience

Jiyoung, Kang¹ · Jiyoung, Seo²

¹*Research Institute of Health and Nursing, College of Nursing, Jeju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²*Department of Nursing, Bucheon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한국간호연구학회지 『별책』 제5권 제4호 2021년 12월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 5, No. 4, December. 2021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훈련에 적용된 선후배간 동료교수활동 경험 연구 : 선배 동료교수자 경험 중심으로

강지영¹ · 서지영²

¹건강과간호연구소, 제주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 ²부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Cross-Age Peer Tutoring for Core Basic Nursing Skills Training in Nursing Students: Focus on Senior Peer Teachers' Experience

Jiyoung, Kang¹ · Jiyoung, Seo²

¹Research Institute of Health and Nursing, College of Nursing, Jeju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²Department of Nursing, Bucheon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and describe the experience of senior peer tutoring for core basic nursing skills training in nursing students. **Method** : Data was collected in June 2019 by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of seven third-grade nursing students. The transcribed data underwent thematic analysis. **Result** : The analysis revealed four themes. First, “Senior peer tutoring to improve education and nursing skills performance” illustrates participants’ motivation to apply for senior peer tutoring. Second, “Training and feedback to become a senior peer teacher” describes re-learning and practice nursing skills under professor coaching through a peer teacher competency empowerment program before senior peer tutoring. Third, “Win-win nursing skills education field with junior students” delineates the experience of growing together as senior peer teachers help and teach junior. Last, “Development through self-reflection” illustrates self-awareness what needs to be improved and reserve to be a good nurse in the clinical field. **Conclusion** :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ross-age peer tutoring can supplement limitations of same-age peer tutoring in core basic nursing skills educ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competency empowerment programs for senior peer teachers to improve confidence in education and nursing skills performance.

Key words : Nursing students, Mentoring, Nursing education, Qualitative research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은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마친 후 다양한 임상현장에서 역량 있는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교육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1]. 간호학은 실무학문으로 실습교육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정보 보호 기준, 환자권리 및 안전의식의 강화, 환자의 질적 간호 요구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직접적인 간호술기 수행이 제한되고 관찰 위주로 임상실습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2]. 이로 인해 임상실습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신규간호사는 전문직 간호사로서 임상실무현장에서 환자의 다양한 요구에 만족스러운 대처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는 임상적응력 저하로 인한 이직, 그리고 간호수행능력과 자신감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3-5].

이에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실무능력을 갖춘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간호사 직무 수행에서 수행 빈도와 중요도가 높아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학습되고 성취되어야 할 간호술기를 20가지 핵심기본간호술로 선정하여 졸업학년의 핵심기본간호술의 성취수준을 평가하고 있다[6]. 이러한 핵심기본간호술의 충분한 교육과 반복적인 집중훈련은 졸업 후 신규간호사의 적응과 역할 수행을 위한 학습전이를 용이하게 하며 임상수행 자신감과 효능감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5,7]. 따라서 역량을 갖춘 간호전문의의 임상적응력을 높여 간호 인력의 손실을 막고 질적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간호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핵심기본간호술의 훈련과 간호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현재 간호대학에서는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자율실습을 운영하고 있다. 자율실습이란 개방된 실습실에서 학생들이 정규 실습시간에 배운 핵심기본간호술을 자율적으로 연습하는 실

습으로, 핵심기본간호술을 반복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8]. 이러한 자율실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 폰 동영상 촬영[9], 이미지 상상훈련[10], 동료교수법[8,11] 등의 교육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 중 동료교수법이란 비슷한 나이의 학습자들이 가르치고 돕고 배우며 서로의 학습을 이끌어주는 협력적 교수학습 전략으로[12], 핵심기본간호술 교육에서 동료교수법 적용이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 숙련도, 학습만족도,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수행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 향상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8,13-15].

동료교수법은 연령에 따라 2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동급간 동료교수법(same-age peer tutoring)’은 동료교수자와 동료학습자 간에 나이가 같은 형태를 말하며, ‘선후배간 동료교수법(cross-age peer tutoring)’은 동료교수자가 동료학습자보다 나이가 더 많아 나이차와 경험의 차이로 인한 능력을 발휘하여 학습자를 돕는 형태를 말한다[16]. 동급간 동료교수법을 적용할 경우, 같은 학년에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역할이 나뉘어 정서적 갈등이 유발되고, 동료교수자는 생소한 내용을 미리 학습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담과 걱정, 그리고 긴장감을 경험한다[17-19]. 특히 자율실습 시간에 수준이 비슷한 동급간 동료교수법 적용 시, 의문사항의 즉각적인 해결이나 정확한 피드백이 부족할 경우 동료교수자와 동료학습자 모두 불안을 경험한다[11].

그러나 동급 학년보다는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춘 선배가 동료교수자로서 후배를 교육하게 되면 이러한 동급간 동료교수법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다. 특히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은 저학년에 비해 핵심기본간호술의 관찰과 수행 경험이 많은 강점이 있다. 또한 임상실습을 통해 정확하고 능숙한 술기수행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더 인지하게 되면서 핵심기본간호술의 반복훈련과 연습은 자신이 역량을 갖춘 간호전문가로서 준비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게 된다[20]. 비록 임상실습 전 교내실습 교과목을 통해 핵심기본간호술을 배우지만, 병원 현장에 노출되

기 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술기의 재교육과 훈련은 간호대학생의 간호수행능력과 수행자신감을 높이고 불안을 유의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21]. 또한 선배는 후배들의 술기를 관찰하고 지도하면서 이론적 지식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고 교육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미래 간호교육자로 준비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22]. 그러므로 선후배간 동료교수법을 적용한 핵심기본간호술 교육은 후배에게는 선배가 좋은 롤모델이 되어 학습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선배 동료교수자 역시 자신의 교육과 술기역량 모두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핵심기본간호술 훈련에서 이러한 선배 동료교수자의 강점을 활용한 선후배간 동료교수법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핵심기본간호술 훈련에서 동료교수법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양적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료교수법을 경험한 동료학습자를 대상으로 그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8,13-15]. 질적 연구 또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동급간 동료교수법 적용 후 동료교수자나 동료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선배 동료교수자의 경험을 파악하는데 제한이 있다[11,18,23]. 또한 선배 동료교수자 역할을 수행하기 전 대개 이들은 간호술기의 연습과 훈련을 통해 술기 수행 역량은 갖추게 되지만[8,13-14], 동료학습자에게 다양한 유형의 질 높은 피드백을 전달하는 방법이나 의사소통 하는 방법 등 교육자(educator)로서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은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추후 핵심기본간호술 훈련에서 임상경험이 있는 상급학년이 선배 동료교수자 역할을 하는 선후배간 동료교수법의 적용 확대를 위해서는 선배 동료교수자의 활동 경험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선배 동료교수자의 교육과 술기 역량을 모두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역량을 갖춘 간호전문가를 양성하여 의료현장에서 대상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질적 주제 분석 방법을 이용

하여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훈련에서 선후배간 동료교수활동에 참여한 선배 동료교수자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향후 핵심기본간호술 훈련을 위해 동료교수자로서 영향력과 잠재력을 가진 선배 동료교수자의 교육과 술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선후배간 동료교수법의 적용 및 활용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훈련에서 선후배간 동료교수활동에 참여한 선배 동료교수자의 경험을 파악하고 기술하기 위하여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뒤, 그 자료 안에서 개념을 확인하고 분석하여 주제를 찾아내는 서술적(descriptive) 질적 연구이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 참여자는 G도 소재 일개 대학 간호학과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중 2학년 후배들에게 핵심기본간호술을 교육하는 선배 동료교수자 훈련이나 선배 동료교수활동 경험이 없는 자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는 총 7명이었다.

3. 연구 참여자 훈련 : 선배 동료교수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핵심기본간호술 중 난이도가 높은 항목이 낮은 항목에 비해 동료교수활동을 통해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과 숙련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Yoo 등[8]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난이도가 ‘상’인 유치도뇨를 선후배간 동료교수활동

술기로 선정하였다. 또한 동료교수자 활동 전에는 간호술기의 재교육과 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자는 선배 동료교수자 훈련을 실시한 기존 연구[8,13,14,24]를 근거로 선배 동료교수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프로그램이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는 것은 동료피드백 유형과 방법에 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Park과 Kim[24]은 동료피드백 유형을 칭찬, 격려, 부정, 교정, 단순 소감형, 정보제공, 질문하기로 분류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프로그램 시작 전 피드백 유형을 설명하고 적용하도록 하였다.

프로그램은 총 4단계이며 1단계는 재교육(re-education)으로 본 연구자가 유치도뇨 술기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절차를 설명하고 직접 시범을 보이며 참여자들이 술기를 다시 상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2단계는 술기 평가(skills performance test)로 유치도뇨 술기를 한 명의 학생이 수행할 때 본 연구자와 동료학생 한 명이 동시에 평가를 실시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평가과정을 비디오 촬영 또는 관찰을 하도록 하였다. 3단계는 피드백(feedback)으로 모든 평가가 끝난 뒤, 평가를 실시한 동료가 피평가자 동료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게 하였고 동료들이 피드백을 주지 못한 부분은 본 연구자가 보완해주었다. 또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다시 술기를 수행해보도록 하여 술기수행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마지막 4단계는 디브리핑(debriefing)으로 술기시행이나 평가 시 본인이 느낀 교육과 술기의 숙련도 정도, 술기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을 때 느꼈던 감정, 어려웠던 점, 기억에 남는 피드백 등을 함께 나눴다. 특히 이 단계를 통해 본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학생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교수자로서의 관점에서 자신의 술기 실력, 의사소통 방식 등을 인지하며 추후 선배 동료교수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 지식과 태도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준비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은 1회 4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프로그램 종료 7일 후 참여자들은 유치도뇨 술기연습을 위해 자발적으로 자율실습에 참여한 2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약 4시간 동안 선배 동료교수활동을 수행하였다.

4.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9년 6월에 실시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와 일대일 개인 심층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반 구조화된 면담으로서 참여자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을 하였다. 핵심질문은 “핵심기본간호술 훈련에서 선후배간 동료교수활동에 선배 동료교수자로서 참여한 경험은 어떠하였나요?”였다. 세부 질문은 “선배 동료교수자로 활동하고 싶었던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선배 동료교수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어떠하였나요?”, “2학년 후배들의 술기 연습을 도울 때, 선배 동료교수자로서 어떠한 활동들을 하였나요?”, “선배 동료교수활동 시 어려운 점과 좋았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선배 동료교수활동을 통해 앞으로 무엇을 기대하나요?” 등이었다.

면담 시간은 개인당 평균 4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면담은 참여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재학 중인 학교 내 연구실에서 이루어졌다. 각 참여자와 1회씩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고 자료 수집과 분석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순환적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내용의 포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모든 면담은 녹음되었고 이후 분석을 위해 참여자의 진술을 그대로 필사하였다.

5. 자료 분석

녹음된 자료를 그대로 필사한 후 Braun과 Clarke[25]의 질적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의 6단계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1단계는 연구자가 자료와 친숙해지는 단계(familiarizing yourself with your data)로 본 연구자가 면담 자료를 모두 직접 엄격하게 필사하였고 자료를 반복적이고 능동적으로 읽으며 자료 속으로 몰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단계는 최초의 코드를 생성하는 단계(generating initial codes)로 전체 자료들로부터 의미 있는 특징을 코드화하였다. 3단계는 주제를 찾는 단계(searching for themes)로 코드가 가진 의미보다 더 넓은 수준에서의

분석에 초점을 두며 잠재적인 주제에 따라 코드들을 분류하고 종합하였다. 4단계는 주제에 대해 고찰하는 단계(reviewing themes)로 추출된 주제들을 다시 분석하고 재정렬하며 전체적으로 주제에 포함된 자료들이 의미 있게 통합되는지 검토하였다. 5단계는 주제를 정의하고 이름을 붙이는 단계(defining and naming themes)로 각 주제를 통해 참여자들의 경험을 명확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제를 정의하고 명명하였다. 마지막 6단계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producing the report)로 주제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참여자들의 대표 진술문을 발췌하였고, 이를 토대로 연구의 타당성과 연구문제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제를 논리 정연하게 기술하며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6.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립하기 위해 Sandelowski[26]가 제시한 신뢰성(credibility), 적합성(fittingness), 감사가능성(auditability), 확증성(confirmability)을 평가 기준으로 이용하였다. 첫 번째,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연구 참여자가 경험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신뢰관계를 형성하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면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고, 면담 자료를 연구자가 직접 그대로 필사함으로써 자료가 누락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동 연구자와 필사된 자료를 공유하고 연구 결과에 대해 수차례 논의를 하며 참여자의 의도와 경험이 잘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동료피드백(colleague feedback)을 시행하였다. 두 번째, 적합성 확보를 위해 연구 참여자의 성별, 나이, 기본간호학실습 성적,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중요도 및 필요도 인식 정도 등을 기술하였으며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는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참여자들의 공통적인 경험들을 도출하여 연구결과가 다른 비슷한 조건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 감사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질적 주제 분석 방법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고 분석의 근거가 되는 원 자료인 참

여자의 말을 직접 인용문으로 삽입하였다. 마지막으로 확증성은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가 편중되지 않고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인데, 신뢰성과 적합성, 감사가능성을 확립함으로써 확증성도 획득되었다고 볼 수 있다.

7. 윤리적 고려

본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인 보호를 위해 우선 본 연구자가 직접 강의하거나 교과 성적에 관여하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는 3학년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 전에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연구 진행 방법,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과 연구 참여 익명성 보장, 그리고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 철회가 가능함과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음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모든 면담의 내용은 녹음되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설명한 뒤,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동의한 참여자에게 서면으로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은 후 면담을 시작하였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 참여자는 모두 간호학과 3학년 재학생으로 여성이었다. 연령은 만 20세부터 31세로 평균 24.14세였다. 지난 학기 기본간호학실습 교과목 성적은 A+가 3명, A가 3명, B+가 1명이었다.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71점이었다. 핵심기본간호술의 중요도에 대한 동의는 10점 만점에 평균 9.85점, 필요도에 대한 동의는 평균 9.71점으로 매우 높았다. 마지막으로 현재 간호학과 내 정규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핵심기본간호술에 대한 교육과 훈련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10점 만점에 평균 7.57점으로 참여자가 인지하는 술기의 중요도와 필요도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결과를 보였다(Table 1).

7명의 참여자들로부터 개별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의 질적 주제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핵심기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or Mean±SD	Range
Age		24.14±4.71	
school year	3rd	7(100.0)	
Gender	Female	7(100.0)	
Academic achievement of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A+	3(42.9)	
	A	3(42.9)	
	B+	1(14.2)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4.71±0.48	1~5
Importance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9.85±0.38	1~10
Necessity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9.71±0.49	1~10
Sufficiency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education and training in the curriculum		7.57±1.99	1~10

Table 2. Themes on the Experience of Senior Peer Teachers for Core Basic Nursing Skills Training

Themes	Subthemes
Senior peer tutoring to improve education and nursing skills performance	Interest in teaching Importance of nursing skills experienced through clinical practice Opportunity to become a nursing educator
Training and feedback to become a senior peer teacher	Nursing skills not yet familiar Ability to learn nursing skills faster than before Confidence restored through re-education Learn to communicate as a good peer teacher
Win-win nursing skills education field with junior students	Empathy and consideration for other's point of view Proud of junior students' growth Improving confidence in education and nursing skills performance
Development through self-reflection	Difficulty in providing quality feedback Self-awareness of what needs to be improved Reserve to be a good preceptor and nurse

본간호술 훈련에서 선후배간 동료교수활동에 참여한 선배 동료교수자의 경험을 분석한 결과, 4개의 주제와 13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주제는 ‘교육과 술기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선배 동료교수활동’, ‘선배 동료교수자가 되기 위한 훈련과 피드백’, ‘후배들과 윈윈하는 술기교육현장’, ‘자기성찰을 통한 발전’이었다(Table 2).

1. 제1주제 : 교육과 술기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선배 동료교수활동

참여자들 모두 공통적으로 3학년이 되어 임상실습을 하게 되면서 술기의 중요성과 연습의 필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후배에게 술기를 가르치는 선배 동료교수활동이 자신의 교육역량은 물론 술기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교육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들이 참여자들에게 선배 동료교수자로서 활동하고 싶은 동기를 불러일으켰고, 이에 참여자들은 후배들에게 술기를 직접 가르쳐 보고자 자발적으로 선배 동료교수활동에 지원하게 되었다.

1) 가르치는 것에 대한 흥미

몇몇 참여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것에 흥미가 있었거나 공부를 하면서 동료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같이 나누고 알려주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참여자들은 선배 동료교수자 역할에 대한 부담감 보다는 남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흥미와 보람의 느끼며 적극적으로 후배들에게 간호술기를 가르쳐주고 싶어 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것을 좋아했어요. 저 스스로 공부할 때도 가르치는 형식으로 공부하고 했거든요. 그런 걸 좋아하고 관심이 있다 보니 선배 동료교수자 모집 공고를 보고 바로 지원했어요(참여자 5).”

“저는 사실 저 혼자 잘하는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실제로도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랑 항상 내가 몰랐던 걸 알았다면 알려주려고 해요. 틀릴 거를 안 틀렸으니까 보람차고 좋아요(참여자 6).”

“혼자 해도 되는데 저는 혼자 하는 것보다 누군가한테 얘기하거나 알려줄 때 제가 설명을 하면서 정리가 되는 것 같고 공부가 더 잘 되는 것 같아 좋아요(참여자 1).”

2) 임상실습에서 체험한 간호술기의 중요성

2학년 간호대학생은 대부분 기본간호학실습 교과목에서 핵심기본간호술을 배우고 정해진 프로토콜을 암기하며 모형을 통해 술기를 연습한다. 참여자들은 3학년이 되어 임상실습을 하면서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들이 학교에서 배운 핵심기본간호술을 ‘모형’이 아닌 ‘진짜 사람’에게 ‘실습할 때처럼 똑같이’, ‘그렇게나 많이’ 능숙하게 시행하는 걸 직접 보면서 2학년 때와는 확연히 다르게 술기의 중요성을 실제 몸소 깨닫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부족한 자신의 술기능력을 자각하며 술기의 연습과 반복훈련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선배 동료교수활동을 통해 자신의 술기역량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실습 때 단순도노 할 수 있는지 선생님이 질문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실전에서 내가 바로 하는 거는 다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하면 어느 순간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내 손이 먼저 움직이겠지. 많이 할수록 내게 익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참여자 1).”

“실습 나갔을 때 (혈당검사 주사침을) 한번 찔렀는데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덜덜덜덜 떨면서 세 번 찌르고 네 번 찌르고 했는데 나중에야 잘 하게 되면서 아 이것도 요령이구나 느꼈어요. 2학년 때보다 확실히 달라요. 모형에다 하니 잘 몰랐는데 이제는 직접 환자에게 해야 하니까, 되게 조심스럽고... 실습 나가고 나서 확실하게 연습해야 하고 핵심술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참여자 2).”

“유치도노를 봤는데, 진짜 실습할 때처럼 똑같이 하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냥 학교에서만 틀대로 하는 줄 알았는데 똑같이 임상에서도 하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외워서 그냥 하고 모형에다가 하고 잊어버리는데 임상 나가보니 진짜 중요하단 걸 느꼈어요(참여자 3).”

3) 간호교육자로 준비될 수 있는 기회

참여자들은 ‘남에게 가르치는 행위’, 즉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하고 직접 대상자에게 시범을 보이고 교육을 함으로써 자신의 술기능력과 지식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또한 참여자들은 졸업 후 간호전문가로서 환자, 보호자 교육과 후배간호사를 교육하는 ‘프리셉터’의 역할을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학생 때부터 가르치는 것을 배우고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참여자들은 선배 동료교수활동은 자신의 이러한 교육요구를 충족시키고 간호교육자로서 준비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여겼다.

“나중에 프리셉터도 하니까 그때 가서 제대로 못 가르칠 수도 있고, 그래서 교수자 활동이라는 걸 해 보고 싶었어요. 내가 정확하게 안다면 내가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

고 그런 걸 잘해야 누굴 가르칠 수 있잖아요(참여자 2).”

“실습 갔더니 프리셉터 별로 다양하더라구요. 내가 나중에 프리셉터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교육간호사의 역할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해서 교수자 활동을 해보고 싶었어요(참여자 6).”

2. 제2주제 : 선배 동료교수자가 되기 위한 훈련과 피드백

참여자들은 비록 2학년 때 핵심기본간호술을 배웠지만 임상에서 간호술기를 수행하는데 있어 숙련도나 정확도가 부족함을 인지했다. 그래서 선배 동료교수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전, 핵심기본간호술 선배 동료교수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술기를 다시 연습하며 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은 향상되는 자신의 술기능력을 보며 자신감을 회복하였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교수자로서 좋은 태도와 의사소통을 하는 법 또한 배우게 되었다.

1) 아직은 몸에 배지 않은 간호술기

참여자들은 2학년 때는 교과목에서 술기를 연습하고 평가받는 시간이 많지만, 3학년이 되어서는 술기를 연습하고 훈련할 기회가 부족하다고 하였다. 임상에서 본 간호사들은 술기를 수행할 때 매우 능숙하고 자연스러운데 비해 참여자들은 매우 긴장하며 잊어버렸던 술기순서를 기억해내는데 급급 하는 등 아직도 숙련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였다.

“처음에 진짜 막막하고 큰일 났다! 1년 만에 하는 거니까 기억도 하나도 안 나고. 그런데 확실히 다시 배우고 나니까 새록새록 생각도 나고, 확실히 트레이닝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참여자 2).”

“술기평가를 받기 전에는 순서를 한번 읽고만 가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참여자 4).”

2) 이전보다 빠른 간호술기 습득력

선배 동료교수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3단계에 참여자들에게 술기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 후, 다시 술기를 시행하게 함으로 반복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피드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아 맞아!”, “아 그거였어!” 하면서 비록 처음에는 잘 생각이 나지 않았지만, 2학년 때보다 짧은 시간의 교육과 간단한 피드백으로도 이전에 배운 술기에 대한 기억과 지식을 빠르게 기억해 내며 술기수행능력을 향상시켜나갔다.

“한번 평가받고 피드백 받으니까 생각이 다 떠올랐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들으니까 바로바로 수정이 가능했어요. 2학년 때보다 제가 숙달되고 흡수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참여자 1).”

“진짜 2학년 때 잠깐 배우고 3학년 때 또 잠깐하고 그래서 거의 다 까먹어서 처음에 할 때는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교수님과 친구들에게 피드백 받고 바로 했는데도 많이 고쳐지는 모습을 보고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머릿속에 각인이 돼서 잘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참여자 7).”

3) 재교육을 통해 회복된 자신감

참여자들은 처음에는 이전에 배웠던 술기가 잘 생각나지 않고 또 숙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배들을 가르치는 교수자’ 활동을 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 그러나 선배 동료교수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2학년 때 배운 술기를 다시 교육받고 수정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자신의 술기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직접 체험하였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 참여자들은 ‘이제 후배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배 동료교수자가 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회복하며 주눅 들지 않고 후배들에게 준비된 선배 동료교수자로서의 역할을 떳떳하게 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 프로그램 때문에 저희도 한 번 더 리플레이하면서 자신감이 업 된 상태였고 좀 더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했으면 저희도 주눅 들어서 오히려 후배들도 저희를 약간 무시하는 분위기가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 스스로도 떳떳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서 좋았어요. 엄청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참여자 1).”

“이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는 두렵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자신감도 없었어요. 되게 떨리고, 과연 후배님들에게 어떻게 잘 가르치고 평가하고 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저한테도 믿음이 안 가고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하고 많이 알게 되었고 그전 보다는 잘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참여자 5).”

4) 좋은 교수자로서 의사소통을 배워감

참여자들은 2학년 기본간호학실습 교과목에서 핵심술기 동료평가를 해본 경험이 있었다. 그때는 서로가 모두 새로운 술기를 처음 배우는 거라 그저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하는데 급급했고 동료에게 제대로 된 피드백을 주기 어려웠다. 그러나 선배 동료교수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중 피드백과 디브리핑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단순히 틀린 것을 지적하는 ‘평가자’가 아닌, 학습자를 존중하고 격려하며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은 교수자’가 갖추어야 하는 중요한 의사소통의 자질임을 배우게 되었다.

“예전 동료평가 때는 피드백을 줄 때 잘 한 거는 놔둬도 상관없으니 못한 것만 지적해 줬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잘한 거는 칭찬을 해주고 못한 것도 얘기해 주시며 개선해야 하는 방향도 제시해 주셨는데, 아 그래야 배우는 사람이 뭘 잘했는지 뭘 고쳐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를 그때 느낀 것 같아요. 틀린 것만 얘기하면 주눅들 수도 있는데 잘한 것도 칭찬해 줘야한다는 것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참여자 1).”

“제일 좋았던 건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피드백을 주신

게 너무 좋았어요. 평가할 때 말하는 방법이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 어디서 그런 거를 어디서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교수자니까(참여자 2).”

“사실 기본 지식은 거의 같은데 그걸 전달함에 있어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른데 그래도 이렇게 전달하면 잘못된 부분을 그래도 기분 상하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뭘가 간호사가 전문직으로서 어떠한 단어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았어요(참여자 6).”

3. 제3주제 : 후배들과 윈윈하는 술기교육현장

참여자들은 선배 동료교수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후, 이제 선배 동료교수자로서 자율실습실에서 유치도노 술기시험을 앞두고 자율실습을 하러 온 2학년 후배들을 만났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맡은 후배들이 처음에는 서툰 모습을 보였지만 자신이 시범을 보이며 옆에서 하나하나씩 직접 가르쳐 줄수록 후배들의 술기능력이 확연히 좋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술기수행능력과 교육의 능숙도 또한 함께 향상되는 것을 느끼며 참여자들은 자신과 후배가 서로 윈윈하며 성장하는 뿌듯하고 보람찬 경험을 하였다.

1) 역지사지를 통한 공감과 배려

참여자들은 술기시험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서툴고 갈팡질팡하며 막막해하는 후배들을 보며 마치 예전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았다. 그로 인해 참여자들은 후배들의 마음을 더욱 잘 이해하고 공감하였고, 그들의 입장에서 힘을 북돋아주고 격려하려 애쓰며 후배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다.

“제 2학년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 혼란스러웠던 게... 친구들끼리만 하면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대충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싶었고. 제가 어려웠던 게 뭘지 아니까 그런 것들을 더 강조해서 알려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2학년 때는 생각 없이 한 것 같아요 시험쳐야하니까.

근데 임상가보니까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하다 하며 더 잘 알려줬어요(참여자 4).”

“뭔가 작년에 저를 보는 듯한? 엄청 서투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이게 맞나? 싶고... 후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랬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후배가 자기 완전 멍청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니라고 저도 못해요 그러면서 격려해 줬어요. 그런데 마지막엔 진짜 잘했어요(참여자 7).”

2) 후배들의 성장으로 인한 뿌듯함

참여자들도 후배들과 같은 간호학과 ‘학생’이지만 술기교육현장에서 만큼은 ‘교수자’의 마음과 태도로 후배들을 잘 가르쳐주려고 노력했다. 후배들은 그러한 선배들의 시범과 정성 어린 피드백을 받으며 점차 자신의 부족한 술기를 보완해갔으며 교육 후반으로 갈수록 교육에 참여한 후배들의 술기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렇게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교육을 통해 후배들이 성장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후배들이 자신의 정성과 노력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할 때, 선배 동료교수자로서 매우 뿌듯함과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저도 부족하지만 제 피드백을 받고 자기 스스로 수정해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내고 점점 잘하는 후배를 보니까 뿌듯했어요. 수업할 때는 많은 인원을 데리고 하니 하나하나를 봐줄 수 없는데 이거는 일대일로 봐주고 체크하고 피드백 주고 해주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참여자 7).”

“제가 가르쳐줬던 후배가 시험을 보고 나왔는데 어제 선배님이 알려주셔서 몰랐던 것도 알게 되었고 시험도 잘 봤어요 하는데 진짜 너무 뿌듯했어요. 되게 좋았어요 기분이(참여자 1).”

“뿌듯함... 애들이 감사하다는 말을 해주는데. 이렇게 와서 해주는 게 보람이 있구나 생각했어요(참여자 4).”

3) 교육과 술기수행능력에 대한 자신감 향상

참여자들은 후배들의 술기연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관찰하면서 평가를 실시하였고 피드백을 제공하면 후배들은 그 피드백을 반영하여 다시 술기를 연습하였다. 또 술기연습 도중 후배들이 질문을 하면 적극 답변을 해주는 등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닌 상호교류적인 방법으로 술기를 지도하였다. 이렇게 여러 명의 후배들을 반복적으로 관찰하고 지도함으로써 참여자들은 ‘눈을 감고도 술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술기에 매우 능숙해져 이제는 가르치는 것도, 배우는 것도, 실제 술기를 수행하는 것도 모두 잘 해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자기는 제대로 했는데 다른 학생이 잘 못했을 때 제가 설명을 또 해주잖아요. 옆에서 다들 같이 들으면서 서로 배우고. 저도 후배들 하는 것을 계속 보는데, 보는 것도 진짜 도움이 돼요. 우선 순서는 확실히 100프로... 거의 98프로 정도 가깝게 외워지구요. 서로 윈윈했던 것 같아요(참여자 1).”

“이 술기를 잘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들었어요. 많이 해보고 보기도 많이 보고 피드백도 줘보고 많이 해보니깐.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하는 것보다 누굴 가르쳐보고도 하니깐... 졸업 후에 훨씬 술기를 잘 할 수 있고 당황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울 때 더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도 이해가 되니까요(참여자 4).”

“계속 후배들이 하는 거를 반복해서 보니까 저도 숙달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유치도뇨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참여자 5).”

4. 제4주제 : 자기성찰을 통한 발전

참여자들은 선배 동료교수활동을 하기 전에 선배 동료교수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열심히 다시 배우고 준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기교육현장에서 다양한 후배들과 상황을 마주하며 어려움을 경

험하였지만, 선배 동료교수활동 후 스스로 일련의 과정들을 돌아보며 부족한 점을 인지하며 보완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이러한 선배 동료교수 활동이 앞으로 미래 자신과 함께 할 의료인들과 환자, 보호자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프리셉터와 간호사가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하였다.

1) 질 높은 피드백 제공의 어려움

참여자들은 사전에 배웠거나 준비한 것 외에 후배들이 질문을 하면 당황스러웠고 자신이 가르쳐준 게 정말 맞을까 의구심을 갖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제 후배들의 술기를 평가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후배들에게 단순히 옳고 그름을 지적해 주는 교정하거나 단순 소감형이 아닌, 동료학습자가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질 높은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는 아직 어려움이 있었다.

“제가 설명하는 게 뭔가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 동기들한테 물어봐서 다시 알려주고 그랬어요. 피드백을 줄 때 그런 게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줘야 하니까요(참여자 7).”

“피드백 주는 게 되게 쉬워보였는데 제가 하니까 되게 어렵고 칭찬해주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지적하는 거는 틀린 거 알려주는 거니까 눈에 보이니까 쉽잖아요. 그런데 어느 부분을 칭찬해야 하는지 좀 어려운 것 같아요(참여자 5).”

2) 보완할 부분을 스스로 인지함

참여자들은 선배 동료교수활동을 하면서 미처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었고, 학업성취도가 다른 후배들을 지도할 때 자신의 교육방법이나 속도 등을 고민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오히려 후배들이 자신보다 더 잘하는 부분도 있어 자신도 후배들을 통해 배울 점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또한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라포 형성이 잘 되지 않으면 교육이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을 인지하며 친근하게 먼저 다가

가고 후배의 입장에서 생각하고자 노력하였다.

“제가 공부하지 못했던 부분을 후배가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이거 아니까요?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 거를 보완하고 싶어요. 나는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고 저 사람은 10번을 들어야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내가 한 번에 알아들었다고 뻔대지 말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참여자 1).”

“후배들은 처음이고 제가 다 알려주고 싶었는데 초면이고 낯설고 하니까 100퍼센트 다 알려주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평가해줄까요? 하기 보다는 밥은 먹었어? 하고 좀 더 친근하게 먼저 다가가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참여자 5).”

“다음에는 전문적으로 평가지를 작성하는 교수자가 되고 싶어요. 다음에는 손씻기가 짧다 라기보다는 초도 정확히 재주고 싶고 더 자세하게 피드백을 주고 싶어요. 제가 카테터를 감아주는 거를 못하는데, 손이 야무진 후배들이 감아주는 걸 잘하는 거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지 생각했어요. 후배들이 잘하면 부럽기도 하고요(참여자 2).”

3) 좋은 프리셉터, 간호사 되기를 다짐함

참여자들은 임상실습을 통해 다양한 간호사들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프리셉터와 간호사의 모습을 점차 확립해나가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선배 동료교수활동은 프리셉터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참여자들이 미래 자신이 꿈꾸는 좋은 프리셉터, 간호사가 되겠다는 다짐을 더욱 굳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신입들은 다 무섭고 처음이라 긴장하고 그런데 편안하게 화 안 내면서 하는 프리셉터가 될 것 같아요. 긴장되면 알던 것도 모르고 중간중간 빼먹고 그러니까 편안한 분위기로 잘 이끌어보고 싶어요(참여자 3).”

“저는 프리셉터가 된다면 이번 경험을 기억해서 더 잘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방법, 절차 이런 거를요. 저는 궁금한 거 물어보면 진짜 짜증 안 내고 잘 대답해 주고 설명 잘 해주고 그러고 싶어요. 병원에서 이 선생님 본받고 싶다는 생각 들게요(참여자 5).”

“간호사라는 직업이 관계 형성이 중요하잖아요. 나중에 환자를 교육할 때도 그렇고. 이러한 활동을 계속 한다면 간호사의 역할 중에서도 교육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참여자 6).”

IV.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훈련에서 선배동료간 동료교수활동에 참여한 선배 동료교수자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시행되었다. 개인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후, 질적 주제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 4가지 주제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결과 도출된 첫 번째 주제는 ‘교육과 술기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선배 동료교수활동’이었다. 참여자들은 평소 가르치는 것(teaching)에 흥미가 있었고 이는 상대방과 자신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좋은 학습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Yoo 등[8]의 연구에서도 선배 동료교수자 선정 모집 기준에 ‘가르치는 것에 흥미가 있는 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동료교수자 역할을 수행하는데 자기주도성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동료교수활동을 수행하는 강력한 동기로 작용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임상실습을 하며 2학년 때와는 확연히 다르게 술기의 중요성을 더욱 체감하며 ‘술기를 잘하도록’ 준비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역시 선배 동료교수활동에 스스로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로 작용하였다. Jeon과 Jang[20]은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인식 유형을 3가지로 분석하였는데, 그중 ‘행위 중심형’은 술기의 정확한 수행을 중요하게 인지하여 졸업 후 정확한 간호행위를 위해서는 프로토콜에 따라 술기를 연습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유형으로 본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 유형과 유사한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참여자들이 선배 동료교수활동이 단순히 자신의 술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을 넘어, 간호전문직으로서 임상현장에서의 ‘간호교육자(nursing educator)’ 역할이 중요하므로 학부 때부터 그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참여자들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teaching’, 즉 선배 동료교수활동이 간호교육자로서 잘 준비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여 선배 동료교수활동에 지원하게 되었다. 간호대학생은 졸업 후 누구나 교육을 하고 프리셉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간호교육현장에 있는 간호 교수자라면 이러한 간호대학생의 교육에 대한 요구를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단순히 술기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가르치고 교육할 수 있는 교육역량 향상도 함께 증진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 전략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선배 동료교수활동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교육학습 전략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도출된 두 번째 주제는 ‘선배 동료교수자가 되기 위한 훈련과 피드백’이었다. 동료교수활동을 하기 전 동료교수자가 먼저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하므로[8,11,13,14,18,19] 본 연구자 또한 사전 훈련과 교육을 위해 ‘선배 동료교수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선행연구를 근거로 개발하고 적용하였다[8,13,14,24]. 참여자들은 처음에는 술기수행이 숙련되지 않아 서툴렀지만, 2학년 때 이미 술기를 배웠기 때문에 반복되는 연습과 피드백을 통해 빠르게 교정하며 단 시간 내 정확하고 능숙하게 술기수행을 잘해내게 되었다. 따라서 핵심기본간호술 교육과 훈련에 있어 동료교수자를 상급학년으로 선정하는 것은 동급간 동료교수법의 한계, 즉 학생 간 수준이 비슷하여 제대로 학습하는데 한계가 있거나 사전학습을 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이는 불안과 걱정,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제한점[11,17-19]을 극복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참여자들은 선배 동료교수자 역량강화 프로

그럼을 통해 자신의 술기역량이 향상되어 교수자 활동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회복하였다. Yoon과 Park[21], Ycom과 Choi[27]의 연구를 통해 핵심기본간호술 재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술기수행능력과 수행자신감을 증진시키고 불안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졸업 후 임상적응력을 높이고 역량을 갖춘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핵심기본간호술의 재교육은 매우 필수적이며 [27], 선배 동료교수활동은 간호대학의 상급학년과 저학년 모두의 술기역량과 자신감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동료교수자 훈련에 있어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는 것이 ‘피드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다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이전에 자신이 동료에게 피드백을 주는 행위를 누군가에게 피드백을 받거나 피드백 교육을 따로 받은 적이 없어 주로 틀린 것을 지적하는 교정형 피드백을 가장 많이 경험했고 또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선배 동료교수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에서 피드백에 대한 교육과 연습을 하며 ‘진짜 교수자’로서 학습자를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의사소통이 무엇인지에 대해 체험하고 배우게 되어 매우 큰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긍정적인 피드백은 학습자에게 긍정적인 정서를 야기하고 자기효능감을 높여 학습동기를 촉진할 수 있으므로[24,28] 향후 동료교수자 사전 훈련 시, 피드백 제공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다면 선배 동료교수자의 교육 효능감과 동료교수활동의 학습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 도출된 세 번째 주제는 ‘후배들과 윈윈하는 술기교육현장’이었다. 참여자들은 2학년들을 보며 ‘마치 작년의 나의 모습’과 같다고 느껴 더욱 후배들을 배려하며 편안하고 지지적인 분위기 속에서 교육하기 위해 노력했다. 동학년간 교수학습법을 적용한 Kim[23]의 연구에서 동료학습자는 부담 없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것과 학습자 수준에 맞는 수업이 제공되는 것에 대해 큰 만족감을 나타내며 동료교수법은 “서로의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관계” 속에서 서로 협조하며 보완하는 학습법임

을 경험하였다. Lee와 Kang[13]도 선배 동료교수자는 같은 학생 입장에서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교수가 진행하는 교육에 비해 동료학습자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으므로 선배 동료교수자 사전 교육 시 정서적 공감을 고려한 프로그램 구성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참여자들은 처음에는 서툰 후배들이 자신의 피드백을 통해 점차 능숙해지는 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고 반복되는 관찰과 지도(teaching)를 통해 이제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술기수행에 능숙해졌고 가르치는 교수자 활동에 대해서도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동학년 간 상호동료교수법을 적용한 Kim 등[11]의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은 반복되는 관찰과 수행으로 능숙해지며 자신감이 생겼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즉시 수정해나가며 술기수행능력이 향상되는 경험하였으며, Bang과 Kim[5] 또한 핵심기본간호술 수행빈도가 높을수록 수행자신감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본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과 모두 유사한 결과로, 선후배간 동료교수법은 서로가 서로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윈윈’할 수 있는 교수학습 전략임을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자율실습 시간이나 학생들이 주도하여 활동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선후배간 동료교수법을 적용하고 적극 활용하여 자기주도적인 분위기 속에서 핵심기본간호술을 반복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도출된 네 번째 주제는 ‘자기성찰을 통한 발전’이었다. 참여자들은 후배들에게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다양한 피드백 유형을 활용하고 싶었지만, 실제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을 경험했다. Park과 Kim[24]의 연구에서 술기 수행에서 활용된 동료피드백 유형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교정하기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정보제공이었다. 다음은 칭찬하기였는데 교정과 정보제공에 비해 칭찬의 피드백은 구체적으로 잘한 점을 강화하여 제시하기보다는 모호하고 상투적인 표현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 ‘어느 분을 칭찬해야 하

는지 어렵다'고 한 경험과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자가 선배 동료교수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피드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는 하였으나, 그 교육이 참여자들이 활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고 추가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 선배 동료교수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피드백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더욱 강화하여 동료학습자에게 질 높은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여자들은 선배 동료교수활동 후 자신의 활동을 돌아보며 스스로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을 생각하며 더 나은 발전을 위한 성찰을 하였다. Jung[15]은 동료교수활동은 자기주도학습능력을 유의하게 증가시켰고 자기주도학습능력의 하위영역 중 학습평가 역시 유의하게 증가시켰는데, 이는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학습방향을 수정하는데 보다 바람직한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Kim과 Shim[29] 연구에서도 자기주도학습능력은 문제해결능력 과 핵심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 역시 핵심기본간호술의 교육과 술기역량 증진을 위해 자기주도적으로 선배 동료교수활동에 지원하였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동료교수활동은 간호학생들의 자기주도성을 향상시키고 이는 다양한 임상현장에서 지식 습득과 술기역량 증진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은 선배 동료교수활동을 통해 후배와의 좋은 라포 형성,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교육, 후배들을 따뜻하게 격려하며 후배들의 술기능력 향상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며 뿌듯함을 느끼는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들을 통해 미래 프리셉터의 역할을 미리 체험하며 임상에서 좋은 롤모델로서 프리셉터, 교육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핵심기본간호술 훈련에 적용된 선후배간 동료교수활동은 상급학년 간호대학생의 술기수행능력 향상은 물론 간호교육자로서 준비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동급간 동료교수활동보다는 조금 더 진전된 학습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학년 간 학습시간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지만, 자기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율 실습 시간이나 동아리 활동 등으로 핵심기본간호술 훈련에 선후배간 동료교수법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질적 주제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 훈련에서 선후배간 동료교수활동에 참여한 선배 동료교수자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기술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결과 도출된 주제는 4개로 '교육과 술기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선배 동료교수활동', '선배 동료교수자가 되기 위한 훈련과 피드백', '후배들과 원원하는 술기교육현장', '자기성찰을 통한 발전'이었다. 본 연구는 선후배간 동료교수활동이 간호대학생의 핵심기본간호술의 반복연습과 훈련을 돕고 선후배간 상호협력적인 분위기 속에서 서로 협업하며 함께 성장하는 값진 경험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을 질적 연구를 통해 탐구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핵심기본간호술 훈련에 선후배간 동료교수법의 적용과 효과적인 교육성과를 위해 상급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 술기역량을 모두 증진시킬 수 있는 선배 동료교수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와 이러한 선후배간 동료교수법을 경험한 후배 동료학습자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References

1. Kim CJ, Ahn YH, Kim MW, Jeong YO, Lee JH. Development of standards and criteria for accreditation of a baccalaureate nursing education program: Reflections on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nursing profess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 Nursing. 2006;36(6):1002-1011.
2. Han HH. A study of convergence on frequency of performance, self-confidence, performance assessment scores of core nursing skill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14(8): 355-362. <https://doi.org/10.14400/JDC.2016.14.8.355>
 3. Lee YB, Kim YJ. Clinical nurses'awareness and learning needs of education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2019;9(12):705-716. <https://doi.org/10.35873/ajmahs.2019.9.12.063>
 4. Kim YH, Hwang SY, Lee AY. Perceived confidence in practice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of new graduate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4;20(1):37-46. <https://doi.org/10.5977/jkasne.2014.20.1.37>
 5. Bang SS, Kim IO. Relationship among essentials of fundamental nursing skills performance, stress from work and work capability of new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4;20(4):628-638. <https://doi.org/10.5977/jkasne.2014.20.4.628>
 6.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Evaluation core basic nursing skill items. Seoul: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education; 2017.
 7. Chung SE, Kim EH, Shin SJ. New clinical nurses'experiences with learning transfer of core basic nursing skills.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2016;17(1):50-59.
 8. Yoo MR, Kang MS, Kim HW, Han HL, Choi JY. The effects of self-directed practice using peer-tutoring on confidence, performance and learning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in practicing core nursing skill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7;23(1):27-36. <https://doi.org/10.5977/jkasne.2017.23.1.27>
 9. Lee SG, Shin YH. Effects of self-directed feedback practice using smartphone videos on basic nursing skills, confidence in performance and learning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6;46(2):283-292. <http://dx.doi.org/10.4040/jkan.2016.46.2.283>
 - 10 Kim SY. The effects of imagery training on outcomes of clinical competence, voluntary practice time and nursing skill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7;23(1):76-85. <https://doi.org/10.5977/jkasne.2017.23.1.76>
 11. Kim KH, Lim JM, Jang YM. A convergence study on the experience of applying the self-directed practice reciprocal peer tutoring: Focusing on medication nursing of fundamental core nursing skill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2021;12(9):229-238. <https://doi.org/10.15207/JKCS.2021.12.9.229>
 12. Miciano RZ. Piloting a peer literacy program: Implications for teacher education.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2006;7(1):76-84.
 13. Lee YR, Kang HL. Effects of mentoring senior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education on clinical competence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14(11):441-448. <https://doi.org/10.14400/JDC.2016.14.11.441>
 14. Yoon MO, Ju YS. The effects of peer mentoring learnings-based preclinical OSCE program on self-confidence on core basic nursing skills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for nursing stud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7;15(7):285-295. <https://doi.org/10.14400/JDC.2017.15.7.285>
 15. Jung IS. The effects of peer-tutoring activities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1;21(6):127-136.

-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6.127>
16. Warger CL. Peer tutoring: When working together is better than working alone. *Research & Resources on Special Education*. 1991;30:345-459.
 17. Ravanipour M, Bahreini M, Ravanipour M. Exploring nursing students' experience of peer learning in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Education and Health Promotion*. 2015;9(4):46.
 18. Kim JY. Experience of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using same-age-tutoring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8;18(5):261-280.
<https://doi.org/10.22251/jlcci.2018.18.5.261>
 19. Park MH. The effects of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education applying reciprocal peer tutoring on self-efficacy, confidence in performance, satisfac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7;17(22):785-804.
<https://doi.org/10.22251/jlcci.2017.17.22.785>
 20. Jeon Mk, Jang HJ. Nursing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by clinical practice recognition type of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2018;9(3):297-305. <https://doi.org/10.15207/JKCS.2018.9.3.297>
 21. Yoon EH, Park YM. The effects of reeducation on core basic nursing skills on nursing students' competence, confidence and anxiety.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2017;7(5):39-45. <https://doi.org/10.22156/CS4SMB.2017.7.5.039>
 22. McKenna L, French J. A step ahead: Teaching undergraduate students to be peer teachers. *Nurse Education Practice*. 2011;11(2):141-145.
 23. Kim JY. A content analysis of same-age-tutoring experiences for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Focused on peer learners' experience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imulation in Nursing*. 2018;6(2):35-45.
 24. Park YA, Kim EJ. Nursing students' peer feedback types and emotional response, quality of feedback, and self-efficacy for learning from peer feedback in skill training.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9;25(2):186-196.
<https://doi.org/10.5977/jkasne.2019.25.2.186>
 25. Braun V, Clarke V.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y Research in Psychology*. 2006;3(2):77-101.
<https://doi.org/10.1191/1478088706qp063oa>
 26. Sandelowski M. The problem of rigor in qualitative research. *Advances in Nursing Science*. 1986;8(3):27-37. <https://doi.org/10.1097/00012272-198604000-00005>
 27. Yeom YR, Choi KB. Effects of the reeducation of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on clinical stres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confidence in nursing skills of se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6;22(3):283-293.
<https://doi.org/10.5977/jkasne.2016.22.3.283>
 28. Kim EJ. Effects of examiner's verbal feedback on nursing students' accuracy of self-assessment, emotional response, self-efficacy, and perceived quality of feedback in skill performance assess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Nursing*. 2018;25(2):146-154.
<https://doi.org/10.7739/jkafn.2018.25.2.146>
 29. Kim SO, Shim MS. Problem-solving abilit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confidence of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 performance of nursing students. *Korean Society of Public Health Nursing*. 2018;32(3):424-437.
<https://doi.org/10.5932/JKPHN.2018.32.3.424>